



제목	페르시아 제국 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 체제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구약학회
발행일	1999. 6. 5.
저자	김지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45-173
ISBN 또는 ISSN	1229-0521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 체제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이 다리우스 1세 때 제5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지중해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페르시아 제국시대 때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의 행정적, 영역적 구분이 2가지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본다. 첫째, 페르시아 지배자들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적, 국가적 집단들. 둘째, 각 속주 집단들의 경제 체제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 효율성. 저자는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의 민족적-국가적 단위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행정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각 속주의 정치구조는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말살되었으며, 페르시아 제국통치의 기본구조는 그 지역의 다양한 민족 집단에 근거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이 다리우스 1세 때 제5행정구역으로 재편된 이래로, 제국의 왕이 바뀌 때마다 발생하는 주변 지역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여러 문헌자료를 고찰한 결과 제5행정구역이 유다 속주와 사마리아 속주,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과 블레셋 도시 국가들, 그리고 무역상인 아랍인들이 지역적-민족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